

1990년대 우리나라 기업윤리교육의 실태와 과제에 관한 연구: 학부를 중심으로*

한기수

연세대학교 정경대학 경영학과 교수
(kshan@yonsei.ac.kr)

한국경영학회의 1991년 추계 학술대회에서 ‘기업윤리와 경영교육’의 주제를 다룬 이후 우리나라 경영학 교육에서 기업윤리 교육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1999년도에 30개 대학 경영학부장들의 기업윤리 교육에 대한 인식과 그들 대학의 기업윤리 교육의 실태를 조사하여 1994년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경영학부장들의 인식은 1994년과 1999년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업윤리 교육은 거의 배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이고 있었다. 개설 과목 이름은 여전히 ‘기업과 사회’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기업윤리’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담당 교수는 두 연도 모두 전임교수의 비율이 80%를 상회하고 있었으며, 기업윤리 강의 담당교수의 50% 이상이 ‘조직행동’ 전공교수였다. 기업윤리를 개설하지 않은 대학의 경영학부장들은 개설하지 않은 이유로서 ‘타과목보다 낮은 우선 순위’를 들고 있다. 우리나라 경영학계가 당면한 21세기 기업윤리 교육의 과제는 경영학 교수들의 인식의 전환, 기업윤리 교육과 연구를 위한 재정후원자의 발굴, 기업윤리 학회와 학술지 및 연구소 설립을 통한 연구의 활성화, 기업윤리 교수요원의 양성, 통합교과의 실시, 교재 및 사례의 개발을 들 수 있다.

주제어: 기업윤리교육, 경영학부, 경영학부장

1. 서론

1.1 1990년대의 비윤리적 경영활동으로 인한 대형사건 (한기수, 1994)

1990년대는 기업윤리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있어서 큰 전환점을 가져온 시대였다고 생각된다. 1990년대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윤리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 시대는 기업의 비윤리적 활동으로 인한 대형사건 및 사고들이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시대였으며, 기업들이 윤리적인 기업활동을 해야만 하는 국제적 요구와 사회적 요구에 직면한 시대였다. 이 시대에 발생한 기업윤리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건과 사고들

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991년에 두산전자에서 낙동강에 폐놀이가 방류되어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하는 많은 도시의 시민들에게 큰 피해와 충격을 주었다. 이 사건은 두산의 100년 전통과 이미지를 크게 실추 시켰을 뿐만 아니라 수백억 원의 손실을 보게 하였다. 여러 시민단체들이 두산상품 불매운동을 벌였으며 폐놀이에 오염된 수돗물을 먹고 유산한 임산부들이 두산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1994년 10월, 성수대교가 붕괴되어 32명의 시민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시공사인 동아건설은 복구비등의 명목으로 450억을 서울시에 헌납하였으며 서울시는 헌납액은 별도로 동아건설에 대해 800억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청구하였다. 사고원인은 다리의 철골구조

* 이 논문은 2003년 매지학술연구소 연구비에 의하여 작성되었음

물 및 트러스 불량제작에 따른 부실시공과 서울시 공무원들의 관리소홀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국내외 건설시장에서 동아건설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혔으며 우리나라의 건설업체들이 동남아건설 입찰심사과정에서 탈락하는 등 해외 건설수주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1995년 5월, 삼풍백화점이 붕괴되어 506명이 사망 및 실종되고, 940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의 원인은 건축, 구조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의 총체적 부실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고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오전에 붕괴의 조짐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후 6시까지 영업을 강행함으로써 인명피해가 커졌다. 이 사고로 인해 삼풍 이회장은 징역 10년 6월, 아들인 이사장은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그리고 성수대교 붕괴사고에 이어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인해 현대건설이 홍콩 고급아파트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최저가를 써내고도 탈락하는 등 우리나라 건설사들의 해외건설수주에 어려움을 초래하였다.

1996년의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들의 비자금 사건은 전두환씨의 경우, 재벌기업총수들을 포함한 42개 업체의 기업인으로부터 9,50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였으며 이중 일해재단, 새세대육영회, 새마을성금 등의 모금과는 별도로 조성된 자금은 7,000억 원에 달한다. 검찰은 비자금중 2,159억 5천만 원은 기업체대표 등으로부터 특정사업의 수주나 세금의 감면 등 이권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권한 또는 영향력 행사에 대한 대가로 제공되었거나 포괄적으로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선처해 달라는 취지에서 제공된 것으로서 모두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뇌물이라고 밝혀냈다. 노태우씨의 경우, 35개 업체의 기업인으로부터 4,50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였으며 이중 검찰이 뇌물로 인정한 금액은 2,300억 원이었다. 그리고 여러 재벌총수들이 전두환·노태우씨의 비자금 사건으로 인해 뇌

물죄로 법정에 서게 되었다.

1997년 11월, 정부는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겪게된 원인은 정부정책의 실패와 금융시스템의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지적되고 있지만 기업윤리의 관점에서 볼 때, 정경유착으로 인한 경제효율성의 저하와 과도한 차입경영 및 선단식 경영에 치중한 대기업의 부실, 그리고 경영의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신뢰도의 하락을 주요요인으로 들 수 있다. 외환위기로 인해 수많은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부도를 당하였고 200만 명에 달하는 실업자가 발생하였다.

1990년대는 많은 비윤리적 사건과 사고들이 발생하였지만, 기업들과 정부에서 기업의 윤리적 활동을 제고시키기 위한 움직임들이 시작된 시대였다. 먼저 1990년대에 기업들은 기업윤리 현장을 제정하기 시작하였다. 공기업인 포항제철은 국내기업으로는 처음으로 1993년에 4장 15조로 된 ‘윤리강령’을 제정 발표하고 동시에 ‘윤리강령해설’을 발행하였다. 1994년에 사기업으로는 처음으로 LG 그룹이 맥킨지 컨설팅회사의 자문을 받아 ‘윤리규범’을 제정하였다. 이어 현대그룹이 1995년에 ‘기업윤리강령’을 제정하는 등 기업윤리강령의 제정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전경련의 ‘기업윤리 실태조사 결과’(정기업,1999)에 따르면 1999년 5월 현재 22.1%의 기업이 ‘기업윤리강령’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대기업 경영자들의 모임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80년에 기업풍토 쇄신을 위한 기업인대회를 개최하고 ‘기업윤리강령’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1996년에 ‘기업윤리현장’을 선포하였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 단체는 1996년의 정기총회에서 ‘해외진출기업 행동강령’을 채택하였다. 이 강령은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들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지켜야 할 규범을 담은 것이다. 그리고

1999년에 전경련은 ‘기업윤리헌장’을 개정한 ‘신기업윤리헌장’을 발표하였다. 한편 OECD는 1997년에 ‘국제 상거래에 있어서의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 방지를 위한 협약’을 제정하였고 1998년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을 제정하였는데, 이 협약과 법은 1999년 2월 15일부터 우리나라에 대하여 효력을 갖고 있다. 정부는 OECD의 요구에 따라 “국제 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을 제정하였으며, 이법은 1999년 2월 15일에 발효되었다. 그리고 부패방지법이 2001년 7월에 제정 되었다.

1.2 1990년대와 우리나라의 기업윤리교육

1990년대는 경영학 교육에 있어서 기업윤리 교육의 전환점이 이루어진 시대였다. 1990년대 이전에도 몇몇 대학에서 선도적으로 기업윤리 관련과목을 개설하고 있던 했지만, 많은 대학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계기는 한국 경영학회가 1991년 ‘기업윤리와 경영교육’이라는 주제로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추계 학술대회 직후인 1991년에 40개 대학(10개 국립대, 30개 사립대)을 대상으로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8개 대학(전공과목 기준)이 기업윤리 관련과목(기업윤리, 기업과 사회 등)을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업윤리’로 개설한 대학은 1개 대학에 불과 했으며 6개 대학이 ‘기업과 사회’나 ‘경영과 사회’로 개설하고 있었고 모든 대학이 전공선택으로 개설하고 있었다(한기수, 1991).

처음 조사가 이루어진 3년 후인 1994년에 30개 대학(10개 국립대, 20개 사립대)을 대상으로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11개 대학(전공과목 기준)이 기업윤리 관련과목을 개설하고 있었다. ‘기업윤리’로 개설한 대학은 3개 대학으로 증가했으며 ‘기업과

사회’로 개설한 대학은 11개 대학이었다. 그리고 전공필수로 개설한 대학이 1개 대학이었으며 나머지 모든 대학이 전공선택으로 개설하고 있었다(한기수, 1994). 3년 동안에 걸쳐 개설비율이 증가(20%에서 37%)하고 있었으며 과목명도 ‘기업윤리’로 바뀌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전공필수과목으로 개설한 대학도 생겼다.

1994년 3월의 기업윤리교육의 조사연구 이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대형사건 및 사고가 빈발하였고 이들 사건들이 기업윤리와 밀접한 관련을 가졌던 만큼 사회적으로 기업윤리에 대한 관심이 커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들 사건들은 경영학 교육에서도 경영학 교수들의 기업윤리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기업윤리 관련과목의 개설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1997년부터 시작된 학부제와 계열화, 그리고 이중전공제도는 경영학 교과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학부제와 계열화는 전공필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중전공제도는 전공과목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더군다나 경영학과장들은 학부제와 계열화가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기업윤리 관련과목 개설의 큰 장애요인(한기수, 1994)으로서 ‘경영학 교과목에서 우선순위가 낮은’ 것을 들고 있는 바, 학부제와 계열화가 시행되고 있는 지금 기업윤리 관련과목의 개설은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된다.

II. 연구의 목적과 방법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1999년도 현재 학부 경영학부장들의 기업윤리 교육에 관한 인식과 학부에서의 기업윤리 교육의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1990 연도를 마감하는 1999년의 기업윤리 교육의 현황

을 살펴보고, 둘째, 1999년의 조사 결과를 1994년의 연구결과와 비교함으로써 1994년 이후 학부 경영학부장들의 기업윤리 교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학부에서의 기업윤리 교육에 대한 변화의 추세를 살펴보고, 셋째,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경영학계가 당면한 21세기 기업윤리 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정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위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부 경영학부장 또는 경영학과장을 대상으로 1999년 4월 중에 전화조사방법을 사용하였다. 조사대상 대학은 10개 주요 국립대학과 20개 주요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1994년의 연구대상 대학과 동일한 대학을 표본대학으로 선정하였다. 경영학부장들의 인식에 관한 두 연도 간의 차이에 대한 검정은 '작을 이론 t검정'을 사용하였다. 기업윤리 교육의 방향과 과제는 미국 경영학 교육에 있어서 기업윤리 교육과 관련한 문헌연구와 우리나라 기업윤리 교육의 현황과 추세를 토대로 하여 정리하였다.

III. 기존의 연구

3.1 우리나라의 연구

기업윤리의 교육에 대한 우리나라의 연구로는 1991년 주요 10개 국립대와 주요 30개 사립대를 대상으로 기업윤리 교육의 실태를 조사 연구한 줄저 '기업윤리의 교육에 관한 연구(I)'이 있으며(한기수,1992), 1994년에 주요 10개 국립대와 주요 20개 사립대를 대상으로 기업윤리 교육의 실태를 조사 연구한 줄저 '기업윤리의 교육에 관한 연구(II)'가 있다(한기수,1994). 그리고 기업윤리 교육의 효과를 연구한 '한국에서의 기업윤리 교육의 효과'(이종영,1997)이 있다. 연세대학교 경영연구소

는 1997년 5월 "기업윤리의 교육"에 대한 심포지움을 열고 그때 발표된 논문을 '연세경영연구' '기업윤리 특집호'로 발간하였다. 이 심포지움에서 발표된 기업윤리의 교육과 관련된 논문은 기업윤리 교육의 기본과제와 방향을 다룬 '한국 기업윤리의 과제와 방향'(신유근,1997), 기업윤리의 교과과정,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논하면서 학부의 기업윤리 교육의 실태뿐만 아니라 일반대학원과 경영대학원의 기업윤리 교육의 실태도 다루고 있는 '기업윤리의 교과과정,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에 관한 연구'(한기수,1997), 연세대학교의 '기업윤리' 교육사례를 다룬 '경영학과에서의 기업윤리 교육사례'(주인기,1997), 기업윤리의 교육과정과 교과과정을 다룬 '기업윤리의 교육과정'(양창삼,1997), 기업윤리의 교육내용을 조직의 관점의 변화와 함께 다룬 '기업윤리의 교육내용'(문형구,1997)이 있다. 그리고 기업윤리 교육의 방향과 관련해서는 기업윤리 교육의 새로운 접근방법을 시도한 '기업윤리는 교육될 수 있는가? : 기업윤리 교육의 새로운 모델'(박헌준,1998) 이 있으며 1999년도 기업윤리학회 하계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 '한국 기업윤리 교육의 방향'(안길상,1999)이 있다.

3.2 미국의 연구

1953년에 Bowen은 "기업인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책을 발간하였는데, 이 책의 영향을 받아 1957년에 카네기 회사와 포드재단에서 미국의 경영학교육에 대해 각각 주요한 보고서를 발행하였다. 두 보고서는 당시의 경영학교육에 대해 대단히 비판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경영학과 학생들이 점점 복잡해지는 기업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 민감하도록 함으로써, 바람직한 윤리적 가치와 기꺼이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경영자를 양성할 것을 제안하였다(Pamental, 1988). 1961년에 Baumhart는 "기

업가는 얼마나 윤리적인가?”라는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 논문은 1,700여명의 경영자들로부터 직접 응답받아 윤리문제를 다룬 최초의 논문이었다(Pamental, 1988). 1960년대에 철학교수들은 ‘기업윤리’를 응용윤리의 특정분야로 취급하였으나 경영학 교수들은 ‘기업과 사회’에서 기업을 둘러싼 환경을 다루는 경향을 보였다. 이 분야의 개척자는 UCLA의 George Steiner였으며, 그는 수년간 실험 후에 1962년에 윤리와 경영의사결정간의 상호관계를 강조하는 ‘기업과 사회’를 개설하였다(Pamental, 1988).

MaMahon은 1972년에 Sigma Delta Pi Biennial에 소속된 경영대학원에 설문지를 발송하여 174개(회수율 70%) 기관으로부터 회신을 받았다. 회신 받은 대학원 중 98개(56.3%) 대학원이 기업윤리 관련과목을 개설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98개 대학원 중 57개(58.2%) 대학원이 필수과목으로 개설하고 있었다. 개설과목 이름은 ‘기업과 사회’가 가장 많았으며(25개 대학원, 25.5%), 그 다음은 ‘기업환경론’(17개 대학원, 17.3%)이었고 ‘기업윤리’는 4개(4.1%) 대학원에 불과했다. 기업윤리 관련과목의 강의는 ‘한 교수가 전담’하는 대학원이 76개(77.6%) 대학원이었으며 팀강의를 하는 대학원도 8개(8.2%) 대학원이었다(MacMahon, 1975). 1976년 초에 Bentley College는 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기업, 정부, 그리고 학계의 활동을 상호 연결시켜 기업윤리에 대한 통합학제적 과정(interdisciplinary courses)을 수립하였다. Hoffman(1982)은 1980년에 AACSB회원 대학을 대상으로 700개 대학에 설문지를 발송하여 374개 대학으로부터 회신(회수율 53%)을 받았는데 ‘기업윤리’ 관련 과목을 개설한 대학은 205개(과목수 259) 대학(개설비율 54.8%)이었으며 개설과목 중 필수과목은 77개(29.7%), 선택과목은 182개

(70.3%)였다. 그리고 과목명은 ‘기업윤리’가 97개(37.4%), ‘기업과 사회’가 37개(14.2%)였다. 과목개설 부문은 경영학 부문이 114개(44%), 철학 또는 종교부문이 110개(42%)였다. George(1987)는 224개 AACSB(the American Association of Collegiate Schools of Business) 회원대학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발송하여 132개 대학(회수율 58.9%)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는데, 기업윤리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고 응답한 대학원은 33.9%(사립대학 23.8%, 공립대학 55.0%)였으며 기업윤리 관련과목이 개설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른 과목에서 이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응답한 대학원은 39.5%(사립대학 50%, 공립대학 17.4%)이었다. 기업윤리 관련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 필수과목으로 개설된 대학원은 53.7%(사립대학 57.1%, 공립대학 50.0%), 선택과목으로 개설된 대학원은 46.3%(사립대학 42.9%, 공립대학 50.0%)이었다. Schoenfeldt(1991)는 1988년에 663개 AACSB 회원대학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발송하여 284통의 회답(회수율 43%)을 받았는데 ‘기업윤리’를 개설한 대학의 비율은 91%이었으며 필수과목의 비율은 42%, 선택과목의 비율은 58%이었다. 그리고 경영학부문에서 개설한 대학의 비율이 74%이며 철학 또는 종교부문에서 개설한 비율이 26%이었다.

Harvard 대학과 Wharton School은 1987년을 전후하여 기업윤리 교육을 단일과목에서 모든 경영학 과목에 통합시키는 교과과정을 시작하였다. Wharton School의 Dunfee와 Robertson(1988)은 Exxon Education Foundation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18개월 동안 MBA 과정에서의 윤리교육의 확장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결론은 기업윤리는 별도의 선택과목으로가 아니라 주요 MBA 교과과정에 통합되어야 하며 각 기능분야의 교수는 해당과목에서 기업윤리의 내용을 적극

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이 연구를 토대로 하여 Wharton School은 통합교과를 시작하였다. Harvard 대학은 1987년에 Shad가 기업윤리 교육을 위해 3,000만 달러를 기부함으로써 본격적으로 기업윤리교육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여 통합교과를 마련하였다. Wharton School과 Harvard 대학이 실시하는 통합교과과정은 기본적인 골격에서 매우 비슷하다. 우선 두 대학은 학생들이 입학하자마자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기업윤리의 기본개념과 문헌을 소개함으로써 학생들 뿐 아니라 교수들에게도 기업윤리의 중요성을 강하게 인식시키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둘째, 두 대학은 입학 첫 학기에 기업윤리와 관련된 짧은 필수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셋째, 두 대학은 기업윤리와 관련된 여러 선택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넷째, 두 대학은 경영학의 주요 기능분야의 과목에서도 윤리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한기수, 1997) 이러한 통합교과과정의 기업윤리 교육이 다른 대학으로 확산되고 있다.

IV. 조사결과의 분석

4.1 경영학부장들의 기업윤리 교육에 대한 인식

4.1.1 가치관 교육에 대한 관심

학부의 경영학부장들을 대상으로 하여 '경영학 교

육에 있어서 기업윤리 등의 가치관 교육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적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을 '있다'와 '없다'로 응답하도록 했다. 1994년의 30개 대학 경영학부장 중 27개 대학 경영학부장(90.0%)이 가치관 교육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었는데(한기수,1994) 1999년에는 30개 대학 경영학부장 중 28개 대학 경영학부장(93.3%)이 관심을 가진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우리나라 대학의 경영학부장들은 가치관 교육에 대하여 대단히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4년의 학부장들과 1999년의 학부장들 간의 '가치관 교육에 대한 관심도'의 차이에 대해 짝을 이룬 t검정을 한 결과, 두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1.2 우리나라 기업활동의 윤리적 수준

학부의 경영학부장들에게 '우리나라 기업활동의 윤리적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을 '아주 낮다' 1점에서 '대단히 높다' 5점까지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1994년 경영학부장들의 평균값은 2.13으로서 '약간 낮다' 정도로 평가하였었는데(한기수,1994) 1999년 경영학부장들의 평균값은 1.97로서 1994년의 경영학부장들보다 약간 더 낮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것은 1994년 이후 발생한 많은 기업의 비윤리적인 사건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1994년의 경영학부장들과 1999년의 경영학부장들 간의 '우

<표 1> 가치관 교육에 대한 관심

	있다		없다		평균	차이의 평균	t 값	p 값
	명	%	명	%				
1994년	27	90.0	28	93.3	.9000	-3.33E-02	-.441	.662
1999년	3	10.0	2	6.7	.9333			

*평균은 '있다'를 1로 '없다'를 0으로 하여 계산하였음

<표 2> 우리나라 기업활동의 윤리적 수준

	1994년 경영학부장		1999년 경영학부장	
	명	%	명	%
1. 절대 불필요하다	1	3.3	1	3.3
2. 약간 불필요하다	1	3.3	2	6.7
3. 보통이다	1	3.3	4	13.3
4. 약간 필요하다	12	40.0	7	23.3
5. 대단히 필요하다	15	50.0	16	53.3
합 계	30	100.0	30	100.0
평균	4.3000		4.1667	
차이의 평균	.1333			
t 값	.479			
p 값	.636			

리나라 기업활동의 윤리적 수준'에 대하여 짝을 이룬 t검정을 한 결과, 두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1.3 기업윤리 교육의 필요성

학부의 경영학부장들에게 '경영학 교육에서 기업

윤리나 가치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절대 불필요하다' 1점에서 '대단히 필요하다' 5점까지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1994년 경영학부장들의 평균값은 4.30으로서 '약간 필요하다'보다 더 강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한기수, 1994), 1999년의 경영학부장들의 평균값은 4.17로서 1994년의 경영학부장들의 4.30

<표 3> 기업윤리 교육의 필요성

	1994년 경영학부장		1999년 경영학부장	
	명	%	명	%
1. 아주 낮다	4	13.3	6	20.0
2. 약간 낮다	21	70.0	20	66.7
3. 보통이다	3	10.0	3	10.0
4. 약간 높다	2	6.7	1	3.3
5. 매우 높다	0	0.0	0	0.0
합 계	30	100.0	30	100.0
평균	2.1333		2.0333	
차이의 평균	.1000			
t 값	.551			
p 값	.586			

보다 다소 낮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몇몇 경영학부장들과의 전화 면담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것은 기업윤리 교육의 효과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1994년의 경영학부장들과 1999년의 경영학부장들 간의 ‘기업윤리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짝을 이룬 t 검정을 한 결과, 두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2 경영학부의 기업윤리 교육실태

4.2.1 기업윤리 관련과목의 개설비용

1994년의 조사대상 30개 대학 경영학부들 중 ‘기업윤리’, ‘기업과 사회’ 등 윤리나 가치관에 대한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은 19개 대학으로서 63.3%의 대학이 기업윤리 관련 과목을 개설하고

있었다(한기수, 1994). 그러나 이들 19개 대학 중 8개 대학이 교양과목으로 개설하고 있어서 경영학부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공 교과목의 관점에서 보면 개설비율이 과장된 감이 없지 않다. 전공과목으로 개설되고 있는 대학만을 가지고 개설비율을 다시 산출하면 전공과목으로 개설된 대학이 11개 대학이므로 36.7%의 대학이 기업윤리 관련 과목을 개설하고 있었던 셈이다.

1999년의 조사대상 30개 대학 경영학부들 중 윤리나 가치관에 대한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은 22개 대학으로서 73.3%의 대학이 기업윤리 관련과목을 개설하고 있었다. 기업윤리 관련 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22개 대학 중 교양과목으로 개설하고 있는 대학이 3개 대학이므로 전공과목으로 개설하고 있는 대학은 19개 대학이며 전공과목 만으로의 개설비율은 63.3%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전공과목을 기준으로 하여 개설된 비율을 가지고

<표 4> 기업윤리 관련과목의 개설: 교양과목 포함(괄호안은 전공과목)

	1994년 조사대학			1999년 조사대학		
	표본대학수	강의개설		표본대학수	강의개설	
		대학수	비율 %		대학수	비율 %
국립대	10	8(6)	80.0(60.0)	10	6	60.0(60.0)
사립대	20	11(5)	55.0(25.0)	20	16	80.0(65.0)
합 계	30	19(11)	63.3(36.7)	30	22	73.3(63.3)

<표 5> 과목종별

	1994년 조사대학		1999년 조사대학	
	대학수	비율 %	대학수	비율 %
교양필수	1	5.3	-	-
교양선택	7	36.8	3	13.6
전공필수	1	5.3	1	4.6
전공선택	10	52.6	18	81.8
합 계	19	100.0	22	100.0

1994년과 비교하면 1994년 이후 5년에 걸쳐 거의 배에 가까운 개설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하겠다. 이것은 기업윤리 관련과목의 개설비율이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양과목의 개설이 감소되면서 전공과목으로의 개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4.2.2 개설과목 이름

기업윤리 관련과목의 개설과목 이름은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6>의 개설과목 이름이 매우 다양한 것처럼 보이지만 ‘기업과 사회’와 ‘경영과 사

회’, ‘기업환경론’과 ‘경영환경론’은 ‘기업’과 ‘경영’이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본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추정되므로 ‘기업’이란 용어를 통일시켜 다시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기업윤리 관련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대학들 중 절반이상의 대학들이 ‘기업과 사회’라는 이름으로 과목을 개설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약간씩 감소하고 있다. 1999년에 ‘기업과 사회’로 개설한 대학은 기업윤리 관련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22개 대학 중 12개 대학(54.5%)이다. ‘기업윤리’라는 이름으로 개설하고 있는 대학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1999년에는 22개 대학 중 6개 대학(27.3%)이

<표 6> 개설과목 이름

	1994년 조사대학		1999년 조사대학	
	대학수	비율%	대학수	비율%
기업과 사회	10	52.6	10	45.5
경영과 사회	1	5.3	2	9.1
기업윤리	3	15.8	6	27.3
기업환경론(기업과환경)	2	10.5	1	4.6
경영환경론	1	5.3	1	4.6
현대사회와 기업경영	1	5.3	1	4.6
기업문화와 윤리	1	5.3	-	-
기업과 경영	-	-	1	4.6
합 계	19	100.0	22	100.0

<표 7> 조정된 개설과목 이름

	1994년 조사대학		1999년 조사대학	
	대학수	비율 %	대학수	비율 %
기업과 사회	11	57.9	12	54.5
기업윤리	3	15.8	6	27.3
기업환경론	3	15.8	2	9.1
기 타	2	10.5	2	9.1
합 계	19	100.0	22	100.0

‘기업윤리’로 개설하고 있다.

‘기업과 사회’가 기업윤리 관련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대학들이 과반수가 넘게 채택하고 있는 과목 이름이 된 것은 기업윤리 관련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대학들의 강의 담당 교수들이 ‘기업윤리’를 교육할 만큼 충분히 준비 되어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기업과 사회’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초점을 두고 기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집단에 대해 다루기 때문에 일반 경영학을 전공한 교수들도 약간의 관심과 준비를 하면 큰 부담을 갖지 않고 강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기업윤리’는 도덕적 추론과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광범위한 윤리적 주제를 다루고 있어서 응용윤리의 배경이 요구되기 때문에 특별히 그러한 분야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면 선뜻 강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4.2.3 개설한 후의 어려움

개설한 후의 어려움에 대해 1999년의 경영학부장들은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적절한 ‘강사의 부족’과 ‘타 과목에 비해 낮은 우선순위’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들고 있다. 1994년의 경영학부장들의 경우, ‘적절한 교재의 부족’을 큰 어려움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1999년의 경우에는 그 어려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것은 1994년 이후 몇 권의 ‘기업윤리’ 교재가 출간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적절한 강사의 부족’은 여전히 어려움으로 남아 있는 문제로서 기업윤리 교육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우리나라 경영학계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4.2.4 담당교수의 신분과 전공

기업윤리 관련과목이 개설된 대학에서 당해 과목

<표 8> 개설한 후의 어려움

	1994년 경영학부장		1999년 경영학부장	
	대학수	비율 %	대학수	비율 %
적절한 강사의 부족	8	34.8	9	37.5
적절한 교재의 부족	7	30.4	-	-
타과목에 비해 낮은 우선순위	-	-	7	29.2
어려움이 없음	8	34.8	7	29.2
기 타	-	-	1	4.2
합 계	23	100.0	24	100.0

<표 9> 담당교수의 신분

	1994년 조사대학		1999년 조사대학	
	대학수	비율 %	대학수	비율 %
전임교수	16	84.2	19	86.4
시간강사	3	15.8	3	4.6
합 계	19	100.0	22	100.0

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의 신분은 <표 9>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999년의 경우, 22개 대학 중 전임교수가 19개 대학이고 시간강사가 3개 대학이다. 1994년의 경우에도 전임교수가 16개 대학이었고 시간강사가 3개 대학이었다. 이것은 비록 기업윤리 관련과목을 가르칠 교수요원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시간강사에 의존하면서까지 강의를 개설하지는 않으려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윤리 관련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의 전공배경은 <표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조직행동’을 전공한 교수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마케팅’이었으며 ‘조직행동’을 전공한 교수의 비중이 더 커지고 있다. 이것은 ‘조직행동’이 비교적 다른 전공에 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주제나 윤리적 주제에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팀티칭을 하고 있는 대학도 2개 대학이 있었다. 그리고 ‘경영정책’, ‘국제경영’, ‘생산관리’, ‘회계학’ 등이 1개 대학씩 있었으며 이 경향은 크게 바뀌지 않고 있다.

‘전담할 교수를 채용할 계획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1994년과 1999년의 경영학부장들은 예외 없이 전담할 교수를 채용할 계획이 없다고 응

답하였다. 이것은 앞으로도 기존의 교수들에 의해 관련과목의 강의가 진행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누군가가 기업윤리를 전공하더라도 당분간 대학에 설자리가 없음을 의미하며 단기적으로 기업윤리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교수들 중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임을 시사하고 있다고 하겠다.

4.2.5 개설하지 않은 이유

기업윤리 관련과목을 개설하지 않은 대학의 경영학부장들에게 개설하지 않은 이유를 질문한 응답결과는 <표 11>과 같다. 1991년과 1994년에는 한 항목 이상을 선택할 수 있게 하였으나 1999년에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한 가지만 선택하도록 하였다. 경영학부장들이 대답한 가장 큰 개설하지 않은 이유는 ‘타 과목에 비해 낮은 우선순위’이었다. 이것은 경영학부에서 개설할 수 있는 과목 수가 제약을 받고 있고, 기업윤리 관련과목을 전담할 교수가 없는 상황에서 기업윤리 관련과목이 다른 과목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것이다.

<표 10> 담당교수의 전공

	1994년 조사대학		1999년 조사대학	
	대학수	비율 %	대학수	비율 %
조직행동	10	52.6	15	68.2
마케팅	3	15.8	2	9.1
경영정책	1	5.3	1	4.5
국제경영	1	5.3	1	4.5
생산관리	1	5.3	1	4.5
회계학	1	5.3	-	-
팀티칭	2	10.5	2	9.1
합 계	19	100.0	22	100.0

<표 11> 개설하지 않은 이유

	1994년 경영학부장		1999년 경영학부장	
	대학수	비율 %	대학수	비율 %
타과목에서 부분적으로 다룸	4	26.7	1	12.5
학과교수들의 관심부족	-	-	-	-
적절한 강사의 부족	2	13.3	1	12.5
타과목보다 낮은 우선순위	8	53.3	5	62.5
기 타	1	6.7	1	12.5
합 계	15	100.0	8	100.0

V. 21세기 우리나라 기업윤리 교육의 과제

우리나라의 경영학계가 당연한 기업윤리 교육의 과제와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서는 우리보다 앞서 수십 년 동안 수준 높은 기업윤리 교육을 발전 시켜온 미국 경영학계의 기업윤리 교육의 발전 과정과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기업윤리 교육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먼저 미국의 기업윤리 교육의 발전과정과 배경을 살펴보고 앞에서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과제와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5.1 미국의 기업윤리 교육의 발전과정과 배경

미국의 기업윤리 교육의 발전과정은 몇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첫 단계는 1950년대의 기업윤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영학 교육에 있어서 바람직한 윤리적 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경영자를 양성해야 한다는 기존 경영학 교육에 대한 비판을 바탕으로 하여 1962년에 '기업과 사회'가 개설되기 시작했고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쳐 가치관 교육의 주요 교과목으로서 '기업과 사회'가 개설된 시기였다. 이때에도 '기

업윤리'라는 교과목이 개설되고는 있었지만 경영학 부문 뿐 아니라 철학부문에서도 개설되고 있었고 '기업과 사회'가 '기업윤리'보다 더 많이 개설되고 있었다(McMahon,1975). 둘째 단계는 1980년대 초에 이르러 '기업윤리'가 가치관 교육의 주요 교과목으로 개설되기 시작한 단계로서 '기업윤리'가 '기업과 사회'보다 더 많이 개설되고 있고 '기업윤리'의 개설을 철학부문이 아니라 경영학부문이 주도하는 시기였다(Hoffman,1982. Schonfeldt,1991). 셋째 단계는 1987년을 전후한 시기에 Harvard 대학교 Wharton School에 의해 주도되어 1990년대에 많은 대학에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기업윤리 교육의 통합교과의 흐름이다. 당분간 미국의 기업윤리 교육은 통합교과의 흐름이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한기수,1997).

미국의 기업윤리 교육이 이러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뒷받침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첫째는 사회 전체의 윤리수준이 비윤리적 기업활동을 용납하지 못하여 기업과 경영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윤리적 경영활동을 요구하였고 대학에 대해서는 경영학 교육에서의 윤리교육을 요구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AACSB와 같은 기관이 교과과정 기준에 가치관 교육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AACSB에 소속된 많은 대학들이 가치관

에 대한 교과목을 교과과정에 도입하기 시작함으로써 가치관 교육의 확산에 기여했다는 점이다. 셋째, Steiner와 같은 소수의 개척자적인 교수들이 수년간에 걸쳐 연례 학술발진회의 등을 개최하여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던 교수들에게 자극과 도움을 줌으로써 가치관 교육이 확산될 수 있었다. 그리고 Harvard에서는 교수 재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기존의 경영학 교수들이 가치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었다. 넷째, 많은 대학들이 기업윤리 관련 연구소를 설립하여 기업윤리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깊이 있게 연구함으로써 기업윤리의 교육과 연구에 기여하였다. 다섯째, 1950년대에는 카네기 재단과 포드 재단, 1970년대에는 GE 재단, 1980년대에는 Exxon 재단 등 다수의 재단이 기업윤리의 교육을 위해 재정적 후원을 하였고, Shad와 같은 개인들도 기업윤리의 교육과 연구를 위해 거액을 기부하였다. 이러한 재정적 후원이 기업윤리 교육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여섯째, 기업윤리 관련 학회와 학술지들이 발간되어 기업윤리의 연구와 교육의 경험들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 있었다. 일곱째, 기업윤리와 관련된 다양한 교재와 사례가 개발되어 기업윤리 교육을 효과적이고 현장감 있게 교육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가 기업윤리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미국에서의 기업윤리 교육의 발전과정과 배경을 염두에 두고 우리나라 기업윤리 교육의 실태를 고려하여 몇 가지 중요한 과제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5.2 우리나라 기업윤리 교육의 과제

5.2.1 경영학 교수들의 인식의 전환

우리나라 경영학부장들의 가치관 교육에 대한 관

심도는 90%를 상회할 정도로 매우 높으며 기업윤리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80% 정도의 경영학 부장들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업윤리 관련 과목을 개설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50% 이상의 경영학부장들이 '타 과목에 비해 낮은 우선순위를 들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의 경영학부장들이 경영의 기능분야에 비해 기업윤리 관련 과목의 중요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경영학 교수들이 기업윤리 교육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기존의 경영학과목 만큼의 중요성이나 그 이상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업윤리 과목이 개설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영학 교수들이 기업윤리 교육의 주체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경영학 교수들이 기업윤리 관련 교과목을 개설할 만큼 그 교과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않는 한 기업윤리 관련 과목의 개설은 쉽지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는 아니었지만,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기업윤리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1999년의 경영학부장들이 1994년 경영학부장들 보다 필요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는 점은 기업윤리 관련 과목개설의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1994년 이후에 기업의 비윤리적 활동으로 인한 사회적 사건과 사고들이 빈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윤리의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1999년의 경영학부장들의 인식이 1994년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개설하지 않은 이유에 있어서 '타 과목보다 낮은 우선순위'로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것은 표본의 숫자가 작고 통계적으로도 유의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시할 수도 있겠으나 적어도 경영학부장들의 인식이 5년 동안에 걸쳐 기업윤리와 관련된 사회적 사건과 사고들에 대해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되는 것이다.

5.2.2 기업윤리의 교육과 연구를 위한 재정후원자의 발굴

기업윤리의 교육과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교육과 연구를 위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미국의 기업윤리 교육의 발전에 있어서도 여러 기관 및 개인들에 의한 재정지원에 힘입은 바 크며, 연세대학교가 수년 동안 기업윤리를 전공필수과목으로 개설하고 운영해온 것도 (주)신라교역의 재정지원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 사회는 아직 기부금을 제공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지 못하지만, 점점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고 있고 인식의 전환도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낙관적인 전망도 할 수 있겠으나 단기적으로는 재정후원자를 발굴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없이는 재정후원을 받을 것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5.2.3 기업윤리학회, 학술지, 및 연구소 설립을 통한 연구의 활성화

기업윤리의 교육과 연구는 학회, 학술지, 그리고 연구소를 매개로한 연구를 통해서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최근에 기업윤리 학회가 만들어지고 학회에서 학술지 발간을 준비 중이어서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된다. 그러나 아직은 학회에 기업윤리에 관심을 가진 많은 경영학자 중 일부만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윤리 학회는 기업윤리에 관심을 가진 많은 경영학자들이 적극적으로 학회 활동에 참여하여 상호간에 연구 활동을 자극하고 교육과 연구의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소는 대학 차원에서 설립될 수도 있을 것이며, 여러 대학이 연합하여 설립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기업윤리를 전공한 경영학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연구소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21세기에 기업윤

리의 교육과 연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연구소의 설립을 통한 연구의 활성화가 필수적인 과제라고 생각된다. 연구소가 많이 설립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업윤리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하며 연구하는 경영학자의 저변이 넓어야 할 것이다. 경영학자의 저변을 넓히려면 아래에서 다루고 있는 기존의 경영학 교수들의 재교육과정이 효과적일 것이다.

5.2.4 교수요원의 양성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기업윤리 관련 교과목을 담당할 교수요원의 확보이다. 1999년의 경영학부장들은 개설한 후의 어려움으로 '적절한 강사의 부족'을 가장 큰 것으로 들고 있다. 기업윤리를 전공한 경영학 교수가 거의 전무한 실정에서 단기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은 첫째, '조직행동'이나 '마케팅'과 같이 윤리적 주제와 인접한 분야를 전공한 교수들 중 가치관 교육에 관심을 가진 교수들부터 '기업과 사회'와 같은 과목을 시작으로 강의를 개설하여 가치관 교육의 경험을 쌓아가는 일이다. 둘째, 팀 강의이다. 이상적인 팀 강의는 철학교수가 윤리이론과 도덕적 추론방법을, 경영학 교수가 경영이론과 경영분석기법과 관련된 윤리적 주제를, 그리고 실무경영자가 경영현장에서 당면하는 윤리적 갈등에 관해 강의 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팀 강의는 대학 내부의 조직구조와 행정상의 문제나 함께 팀 강의를 할 교수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팀 강의를 하는 대학이 별로 없는 실정이다. 셋째, 가치관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강의에 부담을 가진 경영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교수 재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현실적이고 효과적으로 기업윤리 관련 교육을 확산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앞으로의 가치관 교육의 방향이 통합교과의 실시라는 관점에서 볼 때, 교수 재교육과정

의 대안은 교수요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고 본다.

5.2.5 통합교과의 실시

가치관 교육을 ‘기업윤리’나 ‘기업과 사회’등의 교과목만을 통해 교육하려는 것은 경영활동에 있어서 윤리의 문제가 다양한 경영의 각 기능분야와는 분리된 주제처럼 오해하게 할 위험이 있다. 윤리문제는 모든 경영활동에 관련되어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경영학의 모든 교과목에서 그 분야에 관련된 윤리적 주제를 다루어 주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기업윤리 교육에 대한 많은 연구와 실험적인 교육 시행을 통해, 바람직한 기업윤리 교육은 모든 경영학 교과과정에 기업윤리 내용이 통합되는 통합교과의 운영으로 귀결되고 있다. 그리고 통합교과의 모델은 Wharton School과 Harvard 대학의 통합교과 모델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한기수, 1997). 우리나라의 기업윤리 교육의 방향도 궁극적으로는 통합교과의 모델로 가야한다고 생각된다. 경영학 교수 재교육 과정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만 한다면 통합교과의 운영은 가능하다고 보며 통합교과의 운영은 대학원과 경영대학원의 가치관 교육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일 수 있다.

5.2.6 교재 및 사례의 개발

기업윤리 교육을 효과적이고 충실하게 하는데 교재와 사례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기업윤리 관련 교과서와 사례가 다소 개발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다양한 교과서와 사례가 풍부하게 개발되어 있어 부분적으로는 교육과정에 사용할 수 있지만, 많은 경우 문화와 환경이 우리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은 교재와 사

례가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교재 및 사례의 개발은 기업윤리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이다.

VI. 요약과 결론

1990년대는 다른 어느 연대보다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비윤리적인 경영활동으로 인한 사건 및 사고들이 빈번했던 연대였으며, 이와 반면에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윤리적 기업 활동을 강하게 요구받은 시대였다. 우리나라의 기업윤리 교육이 1990년대 이전에도 몇몇 대학에서 이루어지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기업윤리 교육이 시작된 것은 1991년 한국경영학회가 ‘기업윤리와 경영교육’이라는 주제로 추계 특별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부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1994년과 1999년의 주요 30개 대학(10개 국립대, 20개 사립대) 학부 경영학부장들의 기업윤리에 대한 인식과 그들 대학의 기업윤리 교육의 실태를 비교함으로써 1990년대의 기업윤리 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경영학계가 당면한 21세기 기업윤리 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정리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1994년과 1999년의 학부 경영학부장들은 ‘가치관 교육에 대한 관심’이 90%를 상회하는 높은 관심도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 기업활동의 윤리적 수준’에 대해서 ‘약간 낮다’고 평가하였으며, ‘기업윤리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하게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두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기업윤리 관련과목의 개설비율은 전공과목 기준으로 1994년의 경우 36.7%이며 1999년에는 63.3%로 거의 배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이고 있

다. 개설과목 이름은 두 연도 모두 '기업과 사회'가 50%를 상회하고 있으며 '기업윤리'가 1994년(15.8%)에 비해 1999년(27.3%)이 다소 증가하고 있었다. 경영학 부장들은 개설한 후의 어려움으로 '적절한 강사의 부족'과 '타 과목에 비해 낮은 우선순위를 들고 있으며, 두 연도 모두 담당교수의 신분은 '전임교수'가 80%를 상회하고 있고 담당교수의 전공은 '조직행동' 전공교수가 50% 이상이였다. 기업윤리 관련과목을 개설하지 않은 대학의 경영학부장들은 개설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서 '타 과목보다 낮은 우선순위'를 들고 있다. 21세기를 앞두고 우리나라 경영학계가 당면한 기업윤리 교육의 과제는 경영학 교수들의 인식의 전환, 기업윤리의 교육과 연구를 위한 재정후원자의 발굴, 기업윤리 학회와 학술지 및 연구소 설립을 통한 연구의 활성화, 기업윤리 교수요원의 양성, 통합교과의 실시, 교재 및 사례의 개발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표본대학이 주관적으로 선정되었고 표본대학의 수도 작다는 것이다. 그러나 표본대학이 비교적 영향력을 가진 대학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학의 기업윤리 교육의 실태에 대해 많은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연구과제는 일반대학원과 경영대학원의 기업윤리 교육을 들 수 있다. 일반대학원은 기업윤리 교수요원의 양성과 관련되어 중요성이 있으며, 경영대학원은 기업실무자를 대상으로 기업윤리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기업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윤리 교육의 연구대상으로는 이외에도 경영대학원의 최고경영자과정과 기업에서의 신입사원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윤리 교육을 들 수 있다.

참고문헌

- 문형구, "기업윤리의 교육내용", **연세경영연구**, 연세대학교 경영연구소, 제34권 제3호, 1997. pp 247-262.
- 신유근, "한국 기업윤리 교육의 과제와 방향", **연세경영연구**, 연세대학교 경영연구소, 제34권 제3호, 1997. pp 119-139.
- 안길상, "한국 기업윤리 교육의 방향", **하계학술세미나 발표논문집**, 기업윤리학회, 1999. 7. pp 71-83.
- 양창삼, "기업윤리와 교육과정", **연세경영연구**, 연세대학교 경영연구소, 제34권 제3호, 1997. pp 207-234.
- 정기엽, "기업윤리 실태조사 결과", **CEO Report on Current Issue**,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1본부, 1999. 6.
- 주인기, "경영학과에서의 기업윤리 교육사례" **연세경영연구**, 연세대학교 경영연구소, 제34권 제3호, 1997. pp 189-206.
- 한기수, "기업윤리의 교육에 관한 연구(I) : 우리나라와 미국의 교육실태를 중심으로", **매지논총**, 연세대학교 매지학술연구소, 제9집, 1992. 2. pp 379-399.
- 한기수, "기업윤리의 교육에 관한 연구(II) : 경영학과장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매지논총**, 연세대학교 매지학술연구소, 제11집, 1994. 2, pp 333-357.
- 한기수, "기업윤리의 교과과정,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에 관한 연구" **연세경영연구**, 연세대학교 경영연구소, 1997년 기업윤리 특집호, 141-187.
- Dunfee, T. W. and D. C. Robertson, "Integrating Ethics into the Business School Curriculum". *Journal of Business Ethics* 7, 1988, pp. 847-859.
- Ethics Resource Center, "Codes of Ethics in Corporations and Trade Associations and the Teaching of Ethics in Graduate Business Schools" *Opinion Research Corporation*. 1979.
- Hoffman, W. M. and J. Mills Moore, "Results of a

Business Ethics Curriculum Survey Conducted By the Center for Business Ethics," *Journal of Business Ethics* 1, 1982, pp 81-83.

Lee, C. Y., "Impacts of Teaching Business Ethics in Korea" *Teaching Business Ethics I*, 1997, pp 131-149.

McMahon, T. F. C.S.V. "Report on the Teaching of Socio-ethical Issues in Collegiate Schools of Business/Public Administration" *University Press of Virginia*, 1975.

Pamental, G. L. "Ethics in the Business Curriculum," *University Press of America*, Inc. 1988.

Park, H. J., "Can Business Ethics Be Taught ? : A New Model of Business Ethics Education" *Journal of Business Ethics*, Jul. 1998. pp 965-977.

Schoenfeldt, L. F., D. M. McDonald and S. A. Youngblood, "The Teaching of Business Ethics: A Survey of AACSB Member School," *Journal of Business Ethics*, 10, 1991. pp 237-241.

<부 록>

<표본대학>

국립대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사립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국민대, 동국대, 동덕여대, 명지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아주대, 연세대, 영남대, 외국어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한림대, 한양대, 홍익대.

Teaching Business Ethics in 1990's: Emphasis on Undergraduate School

Kee-Soo Han*

Abstract

In Korea, teaching business ethics is increasing in the undergraduate course after 1991's autumn scientific conference of Korean Academic Society which dealt with the topics of 'business ethics and management education'.

This paper examines the recognition of department chief in teaching business ethics and the state of their teaching business ethics in 1999's. And the results are compared with 1994's.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recognition of department chiefs of 1999 is similar to 1994's but the rate of opening business ethics course is increased by twice.

Second, major title of the courses is still 'business and society' and 'business ethics' is increasing slowly.

Third, full time professor is teaching 80% of the courses and 50% of the teachers are professors of 'Organizational Behavior'.

Fourth, the department chiefs who do not open the courses explain the major reason is 'low priority(limited number of courses can be offered)'.

Key Words: Teaching Business Ethics, Undergraduate, Department Chief

* Professor,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College of Government and Business, Yonsei University, 234 Maejiri, Wonju City, Kangwondo, Korea.